

## 복새의 된바람을 이기고

정영호/자연보호중앙협의회장

민들레는 모진 추위에도 굽히지 않고 잘 자라는 강인한 식물이다. 민들레의 잎은 겨울에도 시들지 않고 땅 위에 바삭 달라 붙어서 잎이 서로 포개어지지 않도록 자리를 넓게 펴고 앉아 모두들 함께 햇볕을 반긴다. 이러한 생김새를 로우젯이라고 한다.

추운 겨울에도 이런 모양새를 하고 있으면 복새의 된바람도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감으로 찬 기운을 피하게 되고, 땅을 뒤집고 헤쳐나오는 복사열에 의해 따뜻하다. 또 수리매의 날개처럼 넓게 편 잎에서는 한겨울의 얇은 햇볕일망정 한껏 받아들여서 이를 동화하여 영양분으로 갈무리한다. 이렇듯 민들레는 땅의 품에 안겨 있어 햇님을 땀히 바라보면서 겨울을 지낸다.

민들레가 봄을 자랑하는 꽃들 가운데 으뜸으로 꼽힌다고 해서 반드시 봄을 만나야만 꽃을 피우는 것은 아니다. 마을 빈 터나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양민들레는 서리가 내리고 눈이 날리는 겨울철에도 꽃을 피우기 일쑤이다. 민들레를 잘 살펴보면 꽃이 반쯤 피어 열린 채 땅 위에 비스듬히 누워 있다.

옆자리에는 이제부터 피어나려는 꽃봉오리도 있고, 또 그 옆에는 이미 꽃이 진 뒤의 씨앗이삭으로 자란 갓털 방망이도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추위를 이겨내는 민들레의 기상이 가상하다 할지라도 화창한 봄볕을 만나 화려하게 피어나는 봄의 민들레를 따를 수는 없다.

기나긴 겨울 동안 잎과 꽃을 땅바닥에 붙이고 땅의 하층은 열기를 벗삼아 지내던 민들레는 화사한 햇볕을 동반하는 봄을 맞이하여 잎은 흙먼지를 털고 일어서며, 꽃줄기도 길게 뻗어 노란 꽃을 피운다.

민들레꽃은 새 아침의 햇살을 받으면서 피어난다. 꽃턱잎에 둘러싸여서 노랑 빛깔의 꽃다발이 열리고, 꽃잎이 벌어지면서 둥그런 꽃송이를 이룬다. 이렇게 피어난 꽃은 한낮 동안 피어 있다가 저녁에 해가 떨어져 어두워질 때면 꽃잎들을 다듬어 넣으면서 꽃송이를 단는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도 꽃봉오리는 똑같은 작용을 되풀이하여 꽃송이를 피운다. 그러다가



### 약력

- '50년 서울대 물리과대학 생물학과 졸
- '61년 문교부 문화재위원회 위원
- '65년 서울대 물리과대학 교수
- 현 재 내무부 정책자문회 위원, 서울대 명예교수, 원로과학기술자문단 위원, 광복회 통일문제연구회 위원 등 겸임
- '63년 대한민국 독립유교 표창(대통령 표창)
- '90년 건국훈장 애족장

때로 날씨가 흐려져서 어둡거나 어찌다 비라도 내리는 날에는 꽃을 피우지 않는다.

민들레는 종류에 따라 꽃을 피우는 자극의 느낌이 조금씩 다른 것 같다. 여기에 또 다른 자연의 신비로운 조화가 숨어 있음직하여 자못 흥미를 자아낸다.

민들레꽃이 피어 있는 동안 여러 가지의 곤충이 날아와 앉는다. 많은 수의 꽃 사이를 헤치고 다니는 곤충에 의해 가루받이를 한다. 가루받이를 끝낸 꽃줄기는 일단 땅 위에 놓는다. 한편 가루받이 된 꽃에 갓털이 생기고 갓털자루가 늘어나면서 씨방도 익어서 열매가 생기면 꽃자루는 다시 길게 머리를 들고 일어선다. 그리고 열매가 무르익을 무렵의 개인 날씨에 공기가 가벼워지면 갓털자루 끝에 달린 갓털이 열리면서 둥그런 민들레의 씨앗이삭이 만들어진다. 드디어 갓털이 달린 민들레의 씨앗은 씨앗이삭을 떠나 하늘 저 높이, 바람에 실려 날아간다. 수천 미터의 높은 하늘에서 민들레의 씨앗이 날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비행기 조종사도 많다. 비행기의 정비사들도 높은 하늘을 날아 온 기체의 일부분에서 민들레의 씨앗을 털어내는 일이 드물지 않다고 한다.

민들레의 씨앗은 땅 위에 떨어져 흙에 묻혀 있다가 때에 따라 비를 만나면 씨앗은 그 곳에서 싹튼다 모든 씨앗이 자라서 모두 꽃 피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찌다 곱게 자라나 한 때 꽃 피운 민들레는 많은 씨앗을 날려 보내게 되므로 온 세상의 보다 넓은 곳까지 퍼져 나갈 수가 있다.

봄을 자랑하는 꽃들중에 으뜸인 민들레, 모진추위에도 굽히지 않고 피는 민들레의 기상을 얻어 올 한해에는 따뜻한 마음과 높은 기상이 각자의 마음에서부터 피어나, 이웃으로 번져나가야 겠다. 특히 민들레의 꽃말은 '사랑의 신탁(神託)'이라 한다. 갓털이삭을 에워싼 민들레의 씨앗을 하나씩 따서 불어 날리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와 '내가 나를 사랑한다'를 번갈아 외우며 번져가듯이, 우리의 풋풋하고 끈기있는 사랑이 자연과 이웃에게 골고루 번져 나가길 바란다. 卍